

문화특집

김제보건소 지평선축제 해외홍보

김제시 보건소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리는 '제 18회 지평선축제 세계화를 위해 해외 축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제시보건소는 하계휴가를 맞아 해외로 가는 직원들 대상으로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지평선 축제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당국 언어로 제작된 리플렛을 유명 관광지 안내소 및 지하철 내에 비치하였으며 외국인 및 관광객에게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김제시에서 열린다는 말과 동시에 리플렛을 전달하여 김제시의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김제시보건소 직원은 서로 우리가 김제시를 알리고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평선 축제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일본 오사카와 교베지역, 교토지역에 팸플릿을 배부하고, 비치하여 일본인들의 호응을 얻었고 이후 대만, 홍콩 등 동남아 지역에 방문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행복학습센터는 누구나 원하는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근거리 학습망 구축되어 있고 5개의 테마의 짜임새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학습으로 더 행복한 김제를'

시, 5가지 테마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11월까지 12개 프로그램

김제시는 교육부에서 2016 지역평생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선정 2016. 김제시 행복학습센터가 주민의 높은 참여율과 관심으로 5개 읍면동지역에서 오는 11월까지 12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김제시 행복학습센터는 시민의 거주지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근거리 학습망 구축을 통한 학습의 일상화, 목표로 운영되는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5개의 테마의 짜임새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신동지역 주민을 위한 길보른 행복학습센터는 여성친화형 테마로 경력단절 주부의 자격증 취득 및 똑똑한 유아와 보육을 위한 '살림의 여왕' 등 4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행복학습센터는 가족공예 등 2개 과정의 교육형 테마, 벽골제 행복학습센터는 지역자원인 '쌀'을 이용한 전통쌀떡제조과정, 하동골 행복학습센터는 지역내 실버세대를 위한 노후학습형 테마

로 실버버스타 등 4개 과정, 황산면 행복학습센터는 안전한 마을 지킴이 활동을 위한 마을 안전보안관 교육 등으로 5개소에서 총 12가지 다양한 행복학습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양문연 인재양성과장은 김제시에서는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원하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주지 중심의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학습기본권 보장과 시민 삶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 농소동 상축마을 모정 주위에 인공분수 조성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생활속 작은 아이디어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마을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정읍시 농소동 상축마을이 화제의 현장이다 이 마을의 모정은 차가운 물줄기와 바람 속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멀리서 보면 호수 가운데에 떠있는 집처럼 보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분수처럼 보이는 장치인, 바로 인공분수 덕분이다

이 장치는 상축마을 통장인 강현주씨의 아이디어로 설치했다

더운 날 바닷물에 물을 뿌리면 물이 증발되면서 주위 열을 식혀 시원해지는 원리를 이용, 복분자를 재배할 때 쓰는 긴 호스를 모정 주위에 돌려서 설치하고 인공의 지하수 물을 끌어와 인공 분수를 만든 것

주민들은 '인공 분수 설치 후 모정 안과 밖은 3°C 정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물줄기를 통과해 모정으로 들어오는 바람도 시원해서 이어지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상쾌하게 보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마을주민들이 수시로 모정에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고 담소를 나눌 수 있어 주민들끼리 관계가 더욱 돈독해짐은 물론 폭염에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전언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청소년 동아리연합 장애인 위한 행복한 콘서트

정읍시 청소년 동아리연합이 지난 12일 김곡면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인 '천사마을'에서 '사랑해~우리 함께 날아오르자'라는 주제로 재능 나눔 행복한 콘서트를 가졌다

이날 콘서트에는 밴드동아리와 밴드모아리 등 청소년 8개 동아리팀 3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했고, 전사마을 가족과 같은 지역 내 사설인 민복원 거주 장애인 가족도 함께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재능 나눔에 참여한 정읍시 락밴드 '인터페이스' 보컬 손연리 양(학산고 2)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공연을 좋아하고 흥겨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태한 교월동장, 지평선축제·새만금 2호방조제 홍보 총력

교육생 대상 리플릿 배부 등

김태한 김제시 교월동장은 전국 각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평선축제 홍보 및 새만금 2호방조제 견학 등 새만금의 중심도시 '김제'를 널리 알리는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태한 동장은 현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으로 전국에서 모인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지평선축제 리플릿 배부 등 4년 연속 대

한국 대표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 알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틈틈이 교육생들을 김제에 초대하여 김제의 맛과 멋을 소개하고 있다

그와 지난 10일 분임원들 현장견학시 김제시로 지적공부 등록이 완료된 새만금 2호방조제와 새만금 33센터를 견학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각종 시정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김제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탁월한 친화력으로 교육생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상호교류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김태한 교월동장은 '역동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우리 김제가 농업도시로만 인식되는 점이 항상 안타까웠다'며 '남은 교육기간에도 전국에서 모인 공무원들에게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힘차게 뻗어가는 김제의 참모습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중국 남통시의 교류단 25명일 3박4일 일정으로 김제시를 방문했다.

중국 남통시 홈스테이 교류단, 김제시 방문

한옥숙박 등 전통문화 체험

김제시와 자매결연(1997. 10. 22)을 맺고있는 중국 남통시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단장 진표)' 25명이 지난 8월 11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김제시를 방문했다

중국 남통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김제시의 각 가정에서 1:1 홈스테이를 진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한옥숙박체험, 선비체험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였고, 새만금방조제, 금산사, 벽골제 등을 둘러봤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이번 홈스테이를 계기로 양국 학생들이 훌륭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

로 성장하고, 양국의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로 발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남통시 대표 단장 진표 단장은 "홈스테이 교류단을 열렬히 환영하며 주시 이경식 김제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표하며, 한중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는 남통시 중학생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와 중국 남통시간의 한중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는 양국 청소년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201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네 번째 진행되고 있으며, 김제시 홈스테이 교류단은 답방형식으로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남통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8월 주민세

6억 5,400만원 부과

김제시에서는 8월 균등분 주민세를 6억5,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김제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 법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주민세 납기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11,000원,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가 4,800만원 이상인 자에게 55,000원,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2016년 부과금액은 개인 세대주 400백만원, 개인사업자 121백만원, 법인 139백만원으로 총 664백만원이며 2015년 대비 288백만원(94%) 증가했다

주민세 납부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를 비롯해 고지서 없이 ATM기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080-540-3377) 등을 통해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다

올해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인상한 세율로 부과한 것으로 지방재정 건전성확보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장기간 반영되지 않았던 세율을 현실화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의 경우 시민이 최소한의 자기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납기내 납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동안전·배움터지킴이 합동 직무교육

정읍경찰서, 52명 대상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는 지난 12일 오전 정읍시보건소 4층 건강증진센터에서 아동안전지킴이 36명과 배움터지킴이 16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정읍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아동안전지킴이는 정읍초등학교 등 13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나 놀이터, 공원 등에 배치해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 피를 흘리는 아동을 학교 보건실에 인계하거나 길을 잃은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는 등 치안보조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배움터지킴이는 학교폭력 등 학생들간에

일어나는 문제해결이나 범죄예방 및 보호를 위해 정일여자중학교 등 관내 16개 초·중·고 학교 내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1부 협압과 당뇨검사 등 무료건강검진 위함인 아동목격치 보호 및 신고요령, 아동대상범죄대응교육, 교통안전교육 등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2부는 전북과학대 간호학과 오숙희 교수를 초빙해 건강관리 교육으로 진행하여 지킴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조재현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동안전지킴이와 배움터지킴이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정읍 지역 아동이 더욱더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1부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축하, 기념사 등과 헌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광복절 현충시설 참배 이어져

정읍시와 구파백정기 의사 기념사업회, 현충일 행사

정읍시와 (사)구파백정기 의사 기념사업회(회장 유성업)는 제71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 박준승 선성 묘소와 백정기 의사 기념관에서 현충시설 참배와 기념식을 가졌다

박준승 묘소 참배에는 김생기 시장과 유진섭시의회의장, 보훈단체장과 관내 기관 단체장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참석자들은 박준승 선성 묘소에서 헌화, 분향하고 고인의 독립운동에 대한 업적을 되새기고 넋을 기렸다

이어 (사)구파백정기 의사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백정기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국회 유성업 의원과 애국지사 유족, 그리고 지역 내 기관 단체장 그리고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축하, 기념사, 축사, 광복절 노래, 만세삼창, 그리고 헌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됐

고 2부 행사에서는 한국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 백의사 일대기를 담은 영상물 관람(청의당이 이어졌다

이날 유성업 기념사업회장은 "현재 우리는 경제상황이 어려운데다 사드 배치 문제로 지역 간 갈등 심화되고 있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광복절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조국의 광복을 위해 희생한 선조들의 거룩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자"고 밝혔다

또 김생기 시장은 축사를 통해 "71년 전 오늘은 백정기 의사와 같은 애국선열들의 희생으로 광복을 맞은 뜻깊은 날이다"며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정읍, 나아가 국가 발전을 앞당겨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번 농악공연은 '얼굴꽃'으로 시작해 각자 기량을 뽐내는 개인놀이로 이어졌다.

'한 여름밤의 연희콘서트 농악·정읍' 성료

정읍시립농악단, 700명과 함께

정읍시립농악단의 정기공연인 '한 여름밤의 연희콘서트 농악정읍' 공연이 지난 12일 성황리에 펼쳐졌다

당일 저녁 7시 30분 내장신문화파크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공연에는 시민과 관광객 등 700여명이 관람하며 무더위를 잊고 정읍농악 한 판의 흥겨움을 나눴다 공연에서는 40여명의 시립농악단원들이 관眾을 여는 마당인 '얼굴꽃'으로 시작, 다양한 가락의 변화가 특징인 '오체질꽃', 농부들이 논

매기 같은 일을 할 때 부르는 '농부가'를 비롯 고깔소고와 채상소고 등 단원들이 저마다 기량을 뽐내는 개인놀이 등이 이어졌다

시는 이번 공연에 앞서 정읍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 해병정우회와 학생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받아 공연장 주변을 말끔하게 정비했다

또 시 보건소로부터 의료지원반을 협조받아 관객의 안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출연자의 부상과 관람객의 응급상황 대처에 만전을 기울였다. /정읍=김대환 기자